



세계화는 우리에게 신바람이 될 수 있는가

조국 근대화 이후 새로운 국정 지표이자 이념인 세계화는 지도자의 몇마디 말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중의 새로운 에너지 결집과 동참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이것이 신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존의 관료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과 창조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입체화시킬 수 있는 탈관료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상진 /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들어가는 말

32 년만에 역사적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그 기대보다도 더 강도 높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회 등 군부 정권의 핵심적 인맥을 청산했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선도했으며 사회 각 부문의 사정 활동을 강화했다. 토지나 재산을 많이 가진 상류층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언행과 정책이 뒤따랐다. 청와대가 앞장 서서 고질적인 정경 유착을 끊는다면 금융실명제같은 대형 개혁을 전격 단행하기도 했다. 이런 개혁들에 사람들은 많은 박수를 쳤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개혁의 방식이

法治라기 보다는 人治에 가깝고 또 다른 의미의 권위주의 또는 문민 독재의 징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표명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이런 위압적인 사정 분위기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를 묻게 되었다. 공직자를 포함하여 사회 분위기가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경제는 과연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개혁은 좋지만 무엇인가 답답하다는 소리가 들렸다. 단순히 사람들을 때려잡는 개혁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계속되었다.

꼭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1 년을 넘기면서 확실히 다른 말과 제스처를 쓰기 시작했다

다. 94년 새해에 선언한 국제화와 95년 새해에 선언한 세계화가 바로 그것이다. 196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내걸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계화는 내용과 색깔에 있어 분명히 다른 느낌을 준다. 개방화의 물결 속에 영어를 배우고 해외 견문을 넓히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또는 우리 경제가 이제는 세계로 본격 진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일본과 중국을 옆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 패권주의적 발상을 가질 수는 없지만 세계화는 무엇인가 우리도 국가 발전의 수준을 세계적인 것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의미가 풍겨온다.

여기서 암시되듯이 세계화가 조국 근대화 이후의 새로운 국정 지표이자 이념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지도자의 몇 마디 말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 대중의 새로운 에너지 결집과 동참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세계화가 국민 전환용의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그런지를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신바람이란?

한국인의 심리는 종종 신바람의 신드롬으로 특징된다. 서로 의기가 투합되고 마음만 통하면 생사를 불문하고 전력 투구하는 엄청난 에

너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바람이 일면 일에 속도가 붙고 주관성의 현신과 동원이 일어나며 사회 집단이 일체가 되어 댄다. 인간 관계가 타산적이 되기 전에 정감적, 정서적으로 결합되며 ‘우리 다같이 한번 해보자’는 전투적 단결력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정체되지 않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루려고 하는 강한 삶에의 의지, 성취 욕구, 저항적 도전심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 신바람의 메커니즘과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바람 정치가 합리적인 토론을 방해할 수 있듯이 신바람의 부작용도 생각해 볼 일이다. 뜻밖의 암초나 장애물에 부딪쳐 신바람이 깨질 때 극심한 좌절과 한탄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면 그 사이클이 불안정함을 알 수도 있다. 또한 신바람의 기저에는 응축된 혐이 현실 극복의 에너지로 작용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바람은 그 자체로 역동적인 것이다. 특히 역사를 소수의 지도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볼 때 바로 그 삶의 현장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열망과 상상, 동기, 현신 등 삶의 에너지를 포착하는 데 신바람의 개념은 상당히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신바람은 지도자와 대중의 독특한 심리적 결합을 전제한다.

1960년대 이래의 근대화 과정을 이런 안목에서 볼 수 있다. 우선 거시적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는 국민 총생산이 거의 10% 정도 증가한

해가 매우 많았다. 거대한 인구가 도시로 이동했고 제조업 공장들이 속속 들어섰으며 수출이 눈부시게 신장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국민 대중 사이에 불었던 신바람이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대중적 열망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에 결부되어 너도 나도 농촌을 떠나 기회가 많은 도시로 향했다. 그리고 왕성한 교육열과 불철주야의 노동으로 각자의 꿈을 일구어내고자 하였다. 그 당시 우리는 보리 고개와 같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아보자는 열망은 곧 대중의 신바람으로 변했으며 이것이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 돌진형 근대화

우리는 이 신바람을 '돌진형' 신바람으로 부르고자 한다. 모든 에너지를 하나의 목표에 총집결하는 돌진적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정상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유신 헌법으로 1인 장기 집권을 했으며 무수한 인권 유린, 공작 정치, 언론 탄압, 냉전적 흑백 논리, 지역 차별 등 악폐를 남겼지만, '조국 근대화'의 신념과 열망은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일본 명치 유신을 본받아 국가가 중심이 되어 근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부패한 관료나 직업 정치인 대신 군사적 기강과 명령 체계로 국가 기구들을 개편하고자 했으며 그 지

도력으로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중화학 공업을 일으켜 자주 국방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는 이 부국강병의 목표를 향하여 민주주의도 희생시켰고 시민 사회도 파괴했다. 그 대신 국가가 설정한 경제 성장의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데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매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 보기로 박정희 대통령은 72년 유신 체제를 출범시킨 후 7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향후의 발전 목표로서 80년까지 일인당 국민 소득을 1천 달러로 높이고 수출을 1백억 달러로 하겠다는 의욕적인 선언을 하였다. 이것은 각각 당시 실적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써 과격적인 것이기도 했다. 물론 여기에는 유신 체제의 정당성 결여를 경제 성장으로 보상하려는 동기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목표가 77년에 도달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화학 공업 분야에 당시로서는 엄청난 재원인 1백억 달러를 투입했고 재정, 금융, 조세를 포함하여 온갖 기금, 특혜,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강력한 유인과 강제의 수단을 사용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펼치는 산업 정책의 마당에 뛰어들어 보다 많은 몫을 차지하고자 경쟁하게 되었다.

돌진형 신바람은 따라서 국가의 시대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에 관한 한 확고한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 그 정점에 존재했다. 잘되었건 잘못되었건 간에

그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관료들을 외압으로부터 막아주었기 때문에 관료들은 관료들대로 신바람이 나서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고, 이들에 줄을 대고 있던 기업인들도 길들이고 노동운동을 통제하면서 대중을 산업화의 역군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

돌진형 신바람이 우리에게 주효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에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많은 노동력을 대규모로 조직화하는데서 국부의 비결을 찾았다. 그리하여 방대한 外資와 內資를 동원하여 대기업을 육성했는데 이것은 국제 경쟁의 시대에 대기업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 국가 위주의 시대는 지났다.

그러나 그런 국가 중심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오늘날 우리는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서 이 점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세계화의 시대에 국가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으며 권력의 분산과 시민의 참여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대중을 동원해왔던 돌진형 신바람은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더욱이 이런 안목으로 세계화의 시대를 열려고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리라는 가정도 그럴듯하다.

우선 돌진형 근대화의 부작용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경제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많은 가치들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 인권은 억압되었고 노동 운동은 극심한 탄압을 받았으며 대학은 기형화되었다. 국민 대중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부의 집중화가 지나쳐 빈부 격차는 오히려 훨씬 더 커진 셈이 되었다. 게다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허버트 마르쿠제가 말했던 ‘일차원적 인간’에 상응하는 ‘일차원적 발전’과 같은 것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물질 위주의 사고 방식이 병리적으로 팽창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돌진형 근대화는 그 자체가 군사적이기도 했지만 인간 관계를 수단적이고 정복적인 것으로 변모시켰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사라진 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노미 현상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 이런 배경에서 부정 부패가 판을 치게 되었고 흉악 무도한 범죄가 증폭되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기업이 해외로 대거 진출하고 일반 대중의 해외 관광 붐이 일어날 때 현지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존경받는 세계 시민이라기보다는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추악한 한국인’의 이미지가 강화될지도 모른다. 이런 돌진형 신바람의 체질을 그대로 가지

고 세계화 정책을 성공시킬 수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돌진형 근대화는 당장의 결과를 중시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책임을 현저히 약화시킨 결과가 되었다. 정부건 기업이건 간에 앞만을 보고 질주했을 뿐 뒤를 보살피는 여유, 관리의 전문성, 하자 보수의 완벽성 등은 매우 취약했다는 것이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부실 공사가 만연된 위험 사회에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것도 결국 이런 돌진형 근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이나 부작용에 못지 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 환경과 생산 양식의 변화이다. 간단히 말해 '한국주식회사'라는 말에서 암시되듯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산업 정책이다 지원금이다 하여 다양한 수단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산업을 부추기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것이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정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세계 경제는 갈수록 국경이 소멸된 자유 경쟁 체제로 변모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바람을 조율하는 주체는 더이상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단순한 노동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라는 점이다. 이것은 인간 자원의 새로운 중요성을 보여준다. 물론 과거에도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이 발전의 지렛대였다는 점에서 인간 자원은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머리

가 중요하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높은 지식 수준, 기술적 능력, 창조력, 협동심을 갖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이처럼 지식과 정보가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처럼 정부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잠재적 열망에 불을 붙이고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런 돌진형 근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세계화를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된다

우선 국제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돌진형 근대화의 부작용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구성과 발전 방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과 산업 조직의 변화는 갈수록 노동자에게 많은 참여와 책임 그리고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적 규모로 진행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脫인습적 가치의 성장도 이러한 변화의 필연성을 말해준다. 요지인 즉 물질적 궁핍이 사라지고 개인의 자유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참여적이고 脫인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간 자원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 자원을 과거처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위로부터 동원하는 방식으로 신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처럼 보인다.

성찰적 근대화의 길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신바람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돌진적 근대화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개혁 지향적인 세력의 열망을 사회 조직에 접목시키는 방향에서 새로운 신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 기본 방향을 돌진적 근대화와 구별되는 '성찰적' 근대화로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돌진형 신바람과는 다른 유형의 보다 성숙한 신바람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자아의 표현과 발전, 참여, 자율성, 언술 검증과 같은 脫물질적이자 脫인습적인 가치이다.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신바람을 불러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단순한 물질적 보상보다는 이와 함께 개개인이 그가 속한 조직과 사회에 공지와 보람을 느끼고 정서적 일체감을 이루며 의문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찰적 신바람은 결국 사회 조직과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인간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인습에 의한 지배나 관료제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분산되고 연로가 넓게 개방되며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팀 작업이 자율성을 얻게 되는 발전이 이루어진다. 개개

인의 창의력이 신장되고 조직의 운영 방식이 탄력화되며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무엇인가를 정복하는 신바람이 아니라 조직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신바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 발상은 그동안 당연시된 많은 것들의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을 이곳에서 자세히 논하기는 어렵지만 대신 脫관료제 개혁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이념형적 특징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관료 제도에는 군사 문화가 깊게 침윤되어 있어 그 경직성과 낭비, 비효율성을 넘어서는 개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 1) 단순한 명령보다는 합의가 중시된다. 합의는 기존의 권위나 관행에 의존하기보다 제도화되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2) 대화는 권력이 아닌 영향력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설득의 능력은 현안에 대한 지식의 정도, 공유된 목표에 대한 헌신, 과거의 업적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식적인 지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 3) 영향력은 신뢰에 의존한다.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신뢰가 생길 수 없다. 반대로 혜택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믿음을 모두가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령과 권력에 의존하는 관료제보다 脫관료적 조직은 보다 높은 상호 신뢰를 전제한다.

4) 상호 의존성의 원칙하에 조직의 목표와 과업 등에 관해 끊임없이 토의가 일어나고 정보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이 직무의 경계를 넘어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협력하는 기풍이 진작된다.

5) 세부적인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행위의 원칙이 중시된다. 원칙은 규칙의 배후에 있는 이유를 표현해준다. 따라서 규칙에 얽매이기보다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6) 문제 유형에 따라 의사 소통의 회로가 다양화된다.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를 다루는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 토론한다.

7) 수직적 위계 질서를 떠나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가할 수 있고 동료들이 서로를 평가하여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 확산된다. 이에 따라 서로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에 관한 정보를 갖게 되며 이에 근거하여 영향력의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8) 경력 관리가 개방적으로 변한다. 외부인이 들어오고 내부인이 나가는 현상에 대하여 훨씬 허용적이다.

9) 업적 평가의 기준과 척도도 다양화된다.

10) 시간의 조직 방식도 달라진다. 관료제에서는 회계 년도가 끝나는 연말에 예산의 집행을 심사하지만, 脫관료적 조직에서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시간 주기가 탄력있게 조정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기존의 관료제는 더이상 효율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탈관료제 개혁을 해야만 개개인의 능력과 창조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입체화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 새로운 신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세계화를 추진하는 우리 국민의 품위와 문화 수준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